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도 기념물 됐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150호 지정... 발굴조사 결과 제동로 4기·대형 폐기장 2기·부속 건물지 등 조사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製銅遺蹟)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됐다.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창촌마을 내에 위치한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에 기록된 '동향소(銅鄉所)'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진안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 전라북도 문화재 기념물 제150호 지정(3, 4호 제동로)

대량리 제동유적은 문필봉(해발 598.4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하단부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작업장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경사와 동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원(대량천 및 계곡천)과 연료(목재)를 주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製銅爐) 4기와 대형 폐기장(廢棄場) 2기, 부속 건물지 등이 조사됐다. 특히, 제동로 4기는 동광석에서 동을 1차로 추출하기 위한 제련로(製煉爐)로 국내에서 처음 조사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성된 노의 기초시설만 일부 남아있다. 특히 3호 제동로의 경우 북쪽에 유출재(流出滓)가 용착 돼 있어 노의 세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노의 규모와 위치, 북쪽에 남아있는 유출재를 고려할 때, 제동시설은 제련로로 판단하고 있다.

동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쌓여 형성된 폐기장은 동-서 너비 20.2m 내외이다. 폐기장의 크기로 볼 때, 유적에서는 대규모의 제련(製鍊)이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장에서는 슬래그 및 각종 부산물·노벽편·추정 송풍관(送風管) 등 조업체계를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이 추후 국가 사적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범위 및 성격 등도 심도 있게 파악해 유적의 보존·활용방안을 적극 모색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방역 활동 돋보여

태권도진흥재단, 코로나19 방역 실천 캠페인 진행 등 확산 방지 최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를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를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 대회'는 선수, 지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대회로 23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겨루기' 부문을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T1 경기장과 식당동, 매표소 등 대회 참가자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재단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함께 '코로나19 방역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태권도진흥재단과 자회사 임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태권도로 코로나 극복' 등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전라북도태권도협회도 함께하며 힘을 보태

역업체와 협력해 선수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방역 실천 캠페인과 함께 경기장에 출전하는 선수 등 관계자들의 경기장 입장을 T1 경기장 '1번 게이트'로 한정해 출입을 허용하며 광복대 방역 소독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관중 대회 운영, 경기장 내부 방역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대회 참가자들과 태권도원을 찾는 여행객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평상시 대비 2배 이상 투입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재단 임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방역 캠페인에 동참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품새 부문은 24일과 25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원서 전주 한옥마을 마당놀이 '용을 쫓는 사냥꾼' 펼쳐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마당놀이 2021 '용을 쫓는 사냥꾼' 공연을 태권도원에서 선보였다.

민 등 300여 명이 찾았다. '용을 쫓는 사냥꾼'은 용과 관련한 전주의 구전설화와 향토민속 등의 전통예술에, 현대적 요소인 국악 뮤지컬과 인형극 요소를 결합한 공연이다. 지난 2015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성황리에 공연 중으로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진행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전라북도의 우수한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무대를 제공하고, 전국에서 태권도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추진했다"며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왕은철 교수·하진작가 '특별한우정'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번역가상·문학상 각각 수상

전북대학교 왕은철 교수(영어영문학과)가 중국계 미국인 하진(Ha Jin) 작가를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왕은철 교수 하진 작가

하 작가가 소설 '자유로운 삶(A free life)'으로 올해 첫 제정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이 소설을 번역한 왕 교수가 번역가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23일 부천 아트방커B39에서 열렸다.

'자유로운 삶'은 2007년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됐고, 국내에는 2014년 왕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 출간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접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이들을 통해 이민 1세대의 풀이갈 수 없는 조국, 빼앗긴 땅, 아직은 그들에게 매정하기만 한 자유의 땅, 그림에도 삶과 시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시상식을 위해 내한하는 하 작가는 특별히 그의 오랜 친구인 왕은철 교수가 재직 중인 전북대학교를 찾아 왕 교수와 함께 '자유로운 삶에 대해'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상식 다음날인 24일 오후 2시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7층 동행홀에서 우정으로 다져진 특별한 문학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하진 작가는 1989년 미국 천안문 사건을 접하고 미국에 남기로 결심한 후 영어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전미도서상, 펜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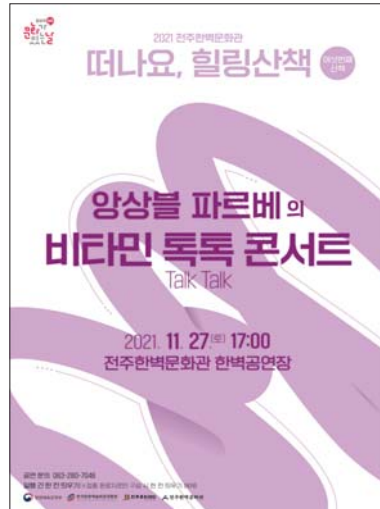
크너상 2회, 펜 해밍웨이상, 조세핀 마일즈 상 등을 수상했으며 2회에 걸쳐 풀리처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쓰레기'를 비롯한 9권의 장편소설, '좋은 추락'을 비롯한 4권의 소설집, '머나먼 증심'을 비롯한 7권의 시집을 펴냈다. 예모리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보스턴대학교 영문과 창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번역가 왕은철 교수는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영번역상, 전속회문학상, 한국영어영문학회 학술상, 생명의 신비상, 전북대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50여권의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현대문학'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데뷔했고 현재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석좌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양상블 파르베 '비타민 토크 콘서트' 전주한벽공연장서 진행

'문화가 있는 날'떠나오, 힐링산책' 공연이 오는 27일 오후 5시 전주한벽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은 '양상블 파르베'에서 준비한 '비타민 토크(talk talk) 콘서트'로 클래식과 재즈를 설명하고 함께 선보여 오랜만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초겨울의 감성을 안겨줄 예정이다.

특히 일상 회복을 맞이하는 시민을 비롯해 얼마 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음악을 통한 휴식과 충전을 선사하고자 마련된 공연으로써, 클래식과 재즈곡들을 공연 팀명 '파르베(독일어로 색채)'처럼 다양한 색으로 표현한다.

2009년 창단된 '파르베'는 Piano, Clarinet, V.Cello의 트리오로 매력적인 색채의 음형을 표현하는 팀으로, 고전음악 외에도 근대와 현대음악, 그리고 타 장르와의 콜라보 등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파르베'만의 콘텐츠타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클래식 예술단체다.

공연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명곡인 '비창'의 2악장인 'Adagio cantabile(아다지오 칸타빌레)'를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 생상스의 '백조', 가곡 '마중(허립 시, 윤학준 곡)' 등을 준비했다.

한편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콘텐츠타사업팀(063-280-7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